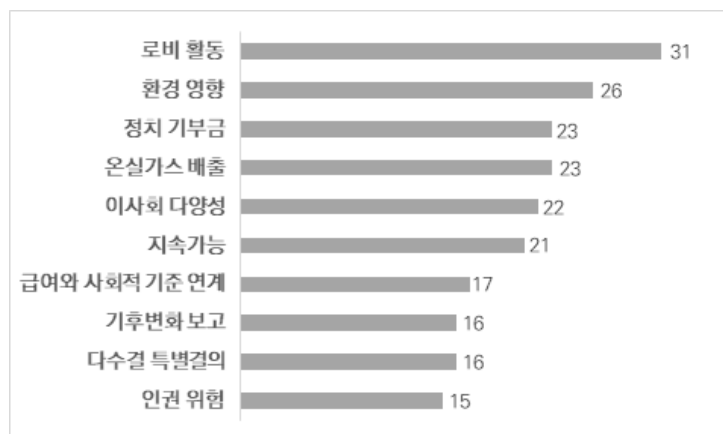


요약

기업 경영에 ESG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 인수 시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을 배제하거나 혹은 ESG를 고려하는 기업에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음. 보험회사는 ESG 관련 인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 부담 정도에 따라 인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특정 보험인수 배제 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 경영에 ESG¹⁾를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의 ESG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도 평판,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²⁾
-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적절한 ESG 위험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그림 1) 참조)
 - 2019년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주주결의안 상위 10개 항목을 보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회 공시 규정³⁾ 준수 및 ESG 위험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와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2019년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상위 10개 주주결의안 유형



자료: DFINsolutions(2019), "ESG Risks and Opportunities: Understanding the ESG Landscape"

1)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뜻함
 2) Insurance Business(2021), "Insurers face greater pressure to manage ESG risk factors"
 3) 사회 공시규정인 Dodd-Frank Act 법령 제 1502조는 미국 상장기업 및 공급사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주석, 탄탈, 텅스텐, 금)을 사용할 때 증권거래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것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위험 인수 시 해당 기업으로 인한 평판 위험 및 보험금 청구 증가에 따른 추가적 재무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
 - AGCS와 The Value Group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성과가 높을수록 평판 훼손, 과징금 부과와 법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 해당 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도 줄어들 수 있음⁴⁾
 - 기업의 환경 문제, Me too 혐의, 임원 횡령 혐의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와 재보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위험 인수를 배제(exclusion)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Zurich, Allianz, Metlife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는 인수 결정 시 ESG를 고려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인수를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함⁵⁾
- Apollo Lloyd's는 Adani사가 진행하는 카마이클(Carmichael) 탄광 프로젝트⁶⁾에 대한 보험계약을 2021년 9월 계약 만료 이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⁷⁾
- 2017년 AXA 그룹은 새로운 석탄 채굴 사업 및 오일샌드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⁸⁾

○ 보험회사는 ESG 관련 인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 인수 여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특정 보험인수 배제 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⁹⁾

- Allianz는 ESG 측면에서 석탄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바로 중단하는 것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함
 - 이에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만 위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을 밝힘

○ 일부 보험회사는 ESG를 고려하는 기업에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인수위험 평가를 위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¹⁰⁾

- Swiss Re는 2020년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을 개최하여 기존 탄소기반 연료에서 그린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해운업자에게 더 낮은 해상 보험료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함
- 보험 데이터 및 분석 업체인 Concirrus는 모든 선박의 환경발자국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엔진 유형 등의 요소를 가격 결정에 통합하기 위한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4) Lockton(2019), "Why ESG may be the next big thing in insurance"

5) Carrier management(2021), "ESG in Insurance Underwriting: European Insurers Lead the Way"

6) 호주 카마이클(Carmichael) 지역에 광산 개발과 철도, 항구 등을 건설하겠다는 대규모의 사업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천만 톤의 석탄을 채굴할 것으로 추정됨

7) REUTERS(2020), "Lloyd's insurer Apollo to stop underwriting Adani coal mine from September 2021"

8) AXA(2017), "AXA accelerates it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9) Carrier management(2021), "ESG in Insurance Underwriting: European Insurers Lead the Way"

10) BCG(2020), "Insurers Take Up the Climate Fight"